

포장표준화실시로 약 9억원 원가절감 효과 기대

포장 전담부서 운영, 종합적인 포장업무 진행

97년 전제품 포장 표준화 작업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인류 식량자원의 보고인 바다개척에 첫발을 내디딘지 29년, 그간 동원산업은 농·수·축산 제품을 모두 취급, 생산하는 종합식품회사로 최근 새로 도입된 경영진과 함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원산업은 경제위기로 모두 어려운 국내 기업의 여건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한 기업의 미래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의 미래를 열어 나가자는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취급품목의 특성상 포장과 물류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지난 97년 1월21일 포장 BPR팀을 구성하고 포장표준화작업을 시작했다.

내부인원 2인과 전문 포장컨설팅 업체인 한국 포장시스템연구소가 공동으로 약 6천만원의 비용을 소요하며 전사품목의 표준화에 대한 작업에 들어갔다.

그것을 계기로 올해 본격적으로 물류관리팀내에 포장부서를 두고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포장개발 부문과 포장기획부문과 신규로 표준화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현재 김덕렬 과장과 선준호 대리 2명으로 시작된 포장전담부서는 진행상 어려움도 없지만 지금까지 등한시 되어왔던 포장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과장은 "포장이 물류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면에서 약 10%선에도 못미치지만 자



◀ 동원산업 물류관리팀내 포장전담부서원들



◀ 최근 포장재질 변경으로 원가절감을 꾀한 제품

재, 생산, 유통, 판매를 연결하는 중요한 접점으로서 물동량 흐름의 기본단위가 됩니다. 또한 자재조달에서부터 소비자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매체로서 포장차별화 이전에 선결과제로서 포장의 규격화와 단위화를 이루어야 물류효율 극대화를 이룰 수 있으며 따라서 포장은 원가절감 뿐만 아니라 판매촉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1차적 목적달성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포장치수 및 설계를 표준팔레트에 적재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수송, 보관, 하역 등으로 이어지는 물적유통과정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며 포장재료 및 기법 등을 시장의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최적화함으로써 재료비 절감 뿐만 아니라 제품보호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김과장은 덧붙였다.

물류 공동화 실현을 위한 노력

동원산업은 먼저 기계화, 자동화에 의한 생산 및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표준팔레트의 적용이 필연적이라고 판단, 조사분석을 거쳐 1200×1000, 1100×1100 2종류의 표준팔레트를 선정하고 향후 표준규격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팔레트확보를 위한 10억원의 물류자금을 융자받고 한국팔레트 주식회사와 팔레트소유와 운영시스템의 연계로 상호이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것은 팔레트 표준화의 조기정착과 물류 공동화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표준팔레트의 적재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반용 골판지 상자의 치수를 재설계함으로써 일관화물 수송체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유통환경에 맞추어 제품보호성을 높이고 원가절감을 꾀하고 있다.

표준팔레트의 적재효율이 90%를 넘는 경우는 기존 포장규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겹포장상자의 내용물인 속, 날포장제품을 치수 변경하지 않고 배열조정이나 유동성 조정을 통해 적재효율이 90%가 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1개월미만으로 사내에서 체

[표 1] 표준팔레트 선정

현재규격	변경된 동원산업 표준팔레트 규격 (mm)			
	1200 × 1000	냉동 냉장유통 (Frozen/Chilled)	T-12형	1,200 × 1,000
1400 × 1100				
1100 × 1100	상온유통 (Dry용)	T-11형	1,100 × 1,100	일반제품
1300 × 1100				

[표 2] 원가절감 효과 종합

(단위 : 백만원)

항 목	내 용	절 감 금 액
치수표준화	상자면적감소 외	257
	물류효율	적재효율 7.3% 향상
강도표준화	골판지상자	472.3
	그라비아	128.5
	읍셋	58.8
합계		916.6

류기간이 짧은 냉장제품은 제품별로 장, 폭, 고를 일치하여 1개의 박스에 다수 품목을 사용토록 하고있다.

겉포장 골판지 박스에 대한 재인식

김 과장은 지금까지 포장에 있어 상품포장에 비하여 크게 중요시되지 않았던 겉포장에 대한 비중을 확대, 골판지 상자의 치수, 강도표준화와 BI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판지상자의 강도는 파열강도와 압축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상자가 외부로부터 강한 충격을 받아 터지지 않으려는 파열강도보다는 상자가 여러단 적재되었을 때 최하단 상자가 위에서 누르는 하중에 견디려는 압축강도를 중심으로 강도표준화를 시행하였다.

또한 기존 골판지상자의 원지구성에 따른 Ring-crush강도, 파열강도 켈리컷트식에 의한 이론 압축강도, 이론안전계수, 골판지상자의 형태 및 강도저하율을 적용하고 골판지 상자의 원지구성을 개선했다.

원가절감과 사용편리 차원에서 박스에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했는데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표기사항을 단순화하고 박스에 코드번호를 표기해

물적유통환경하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다 품종에 따른 관리상 어려움을 해결했고, 냉동제품 박스테이프를 월별로 구별 표시해 선입선출 시 구별이 용이하도록 했다.

특히 박스표기사항을 유통기한으로 일원화하고, 품목단량 표기사항을 두배 크기로 확대하였는가 하면 지난 3월부터는 골판지상자를 회수, 재사용하여 8천매를 회수, 4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최근에는 제지업체와 이면라이너용 원지를 표면라이너 인쇄용 원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기도 했다.

포장전담부서 두명으로 시작?

동원의 경우 그간 포장전담부서가 없어 포장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포장실태가 과대포장이거나 포장규격이 검증되지 않은 채로 타사의 사례를 참고로 해왔던 면이 있었으나 향후 포장표준화 업무외에도 신제품 포장컨셉 파악 및 기획, 기존제품 포장개선, 포장재료스판리의 기획업무와 포장재료비 절감연구, 제품특성과 물성분석, 신소재와 신기법 개발, 포장관련 정보수집업무도 수행하게 될것이다.

그간의 포장표준화를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 동원산업의 주요제품

약 7억원의 원가절감을 이루었으며 지속적인 표준화 구현작업으로 물류비용, 포장재료비 절감과 고객의 리즈에 부응하는 마케팅형 포장설계로 포장재 메이커에서 생산, 물류, 판매, 고객에 이르는 모든 프로세스를 상호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종합적인 포장품질관리시스템 구축을 이룰 계획이다.

최근 냉동식품의 재질을 나일론에서 PET로 전환하였고 파우치의 불필요한 쉘링부위를 대폭 줄여 과대포장을 자제하고 원가절감 효과를 이루었다.

덧붙여서 포장개발과 디자인부서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최상의 포장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디자인 담당자와 업무협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수가 800여개가 되다보니 관리하는 데도 벅차지만 전체매출의 약 15%의 많은 비중을 포장에 투자하고 있는 동원은 앞으로 포장에 대한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로서는 두번째로 물류대행사업에 뛰어든 동원은 최근 한미약품과 진로종합식품으로부터 '펍권' 브랜드의 통조림사업인수 가

계약을 맺은 해림의 물류를 대행키로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물류대행사업에 착수하게 되는 것도 주목해 볼 일이다.

끝까지 책임지는 포장개선, 발주, 사후자재 관리까지 뒷받침하는 동원산업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포장개발부서의 발빠른 움직임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선하 기자

귀사를 홍보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월간 포장계를
 활용하십시오.
 업체탐방문의
 02-835-9041~5